

##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연수강좌 연도별 강의만족도 비교분석

김영민

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 물리치료학과

## Comparison of the Satisfaction of KAOMPT Clinical Education Program Recent Three Years

Young-min Kim

Dept. of Physical Therap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ey Words:**  
KAOMPT,  
Manual  
therapy  
course,  
Satisfaction  
level

**ABSTRACT**

**Purpose:** The system of clinical education program of Korean academic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KAOMPT) was changed in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linical education program in KAOMPT before and after the new program.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the physical therapist who participated the education program of KAOMPT from 2013 to 2015. 7687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ivided in the courses and analysed.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level of satisfaction of introduction course ( $p<.05$ ), cervico-thoracic course ( $p<.001$ ), lumbo-sacral course ( $p<.001$ ), upper extremity course ( $p<.001$ ), lower extremity course ( $p<.001$ ), and advance course ( $p<.001$ ) for three years. The satisfaction of introduction course was decreased in 2014 than 2013, but it was restored in 2015. The satisfaction of cervico-thoracic course was decreased in 2014 than 2013, but it was increased in 2015 than in 2013. The satisfaction of lumbo-sacral course in 2014 was decreased than in 2013, but it was restored in 2015. The satisfaction of upper extremity course in 2014 was increased than in 2013, but it became same level with 2013 in 2015. The satisfaction of lower extremity course in 2014 was increased than in 2013, and it was maintained same level in 2015. The satisfaction of advance course in 2014 was decreased than in 2013, and it is maintained same level in 2015. **Conclusions:**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linical education program was decreased in 2014, but it became same or higher level with 2013 in 2015. It is assumed that the new clinical education program of KAOMPT was established completely in 2015.

**I. 서론**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의 연수강좌는 1995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로 여러 차례 강좌시스템의 개편이 이루어져왔다. 연수강좌가 처음 시작된 1995년에는 A~F 코스까지 6개의 코스로 각 코스당 22시간(2주) 강의가 이루어졌다(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2012).

A코스는 정형도수물리치료의 입문 단계의 강좌로서 A코스를 이수해야 다른 코스를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B~F는 각각 신체부위에 해당되는 코스로서 B는 경추, C는 흉요추, D는 골반, E는 상지, F는 하지코스에 해당되었다. 1998년에는 2주 과정의 방사선판독(S코스)과 각 코스별 중급과정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중급과정은 Ma~Mh 까지 각각 10시간(1주) 과정 8개 코스로서 Ma는 경추, Mb는 흉추, Mc는 요추, Md는 골반, Me와 Mf는 상지, Mg와 Mh는 하지에 해당하며, 관련된 기본코스를 이수한 후 관련 중급코스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부터는 10시간(1주) 과정의 심화

**교신저자:** 김영민(한국교통대학교, ymkim@ut.ac.kr)  
논문접수일: 2016.08.18, 논문수정일: 2016.10.10,  
개재확정일: 2016.10.12.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과정이 개설되었다. 심화과정은 정형화된 기본과정과 중급과정과는 달리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론이나 기법을 강사의 재량에 따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해에는 ASA, ASB, ASC, ACA, ACB, ACC 코스가 개설되었으며, 2003년도에 ACD, ACE, ACF가 추가되었고 그 이후에는 해마다 새로운 코스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 10시간 코스 외에 20시간 또는 30시간의 심화과정도 개설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코스당 20시간으로 통일하였다. 2003년도부터 S코스는 10시간으로 축소 개편되었다.

2004년도에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묶어서 패키지 코스로 개편되었다. 패키지 코스에서는 그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2주 동안 이루어지는 기본과정과 1주간 시행된 중급과정의 강의시간을 모두 1주당 10시간으로 적용하고 기본과정과 관련된 중급과정을 묶어서 각각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였다. 즉 A코스를 소개강좌로 10시간, B코스와 Ma를 묶어 경추 30시간, C코스와 Mb, Mc를 묶어 흉요추 40시간, D코스와 Md를 묶어 골반 30시간, E코스와 Me, Mf를 묶어서 상지 40시간, F코스 와 Mg, Mh를 묶어서 하지 40시간으로 편성하였다.

A코스에서 다루었던 도수치료의 기본개념과 생리학 부분을 둘로 나누어 도수치료의 기본개념 부분은 소개강좌 10시간에, 생리학 부분은 10시간 과정 별개의 코스로 개설하였다. 기존에 일부 중급 코스를 수강했던 수강생을 배려하여 중급 코스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패키지 코스와 함께 병행되다가 2006년도부터는 완전히 패키지 코스로 통합되었다.

2014년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그동안 10시간으로 운영하던 소개강좌는 5시간으로 시간이 축소되었고, 5개의 패키지 코스는 4개로 줄이고 각각 30시간으로 통일하였다. 즉 패키지에서 경추부 30시간, 골반 30시간, 그리고 흉요추부 40시간이던 것을 흉추를 경추에 포함시키고 골반을 요추에 포함시켜 경흉추 30시간, 흉요추 30시간으로 통합하고, 각각 40시간이던 상지와 하지 패키지는 각각 30시간으로 축소 함으로서 30시간 4개의 코스로 개편하였다. 또한 부위별 30시간의 코스를 10시간 기본, 20시간 중급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하였다. 심화과정은 개편 없이 코스당 2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연수강좌 시스템의 개편은 그동안 강좌를 수강해온 수강생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강사들도 강의록의 개편 및 강의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새로운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연수강좌와 관련한 연구로 최초의 중급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에 OMPT 강사들의 정형물리치료 교육효과에 대한 조사(김근조, 1998)가 있었고, 최초의 중급과정이 시행된 첫해인 1999년도에 정형물리치료 강의평가 분석을 시행한 논문(김근조, 1999)이 있었다. 황성수와 권혜정(2012)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 연수교육을 수강하는 수강생들과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 연수교육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특성을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면적인 강의 시스템 2차 개편 전후인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 강의를 수강한 수강자들의 강의 만족도를 비교해봄으로써 2014년도에 시행된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연수강좌 개편의 성공여부를 추정하고, 앞으로의 강좌개편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정형도수물리치료 연수강좌를 수강한 물리치료사로서, 설문지는 학회의 각 지회에서 연수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 중 설문지의 취지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답한 설문지 중 유효 응답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대구, 광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전북(전주), 강원,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회수된 설문지로 2013년 3037장, 2014년 2274장, 2015년 2199장이었으며, 이 중 소개강좌, 패키지 코스와 고급과정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설문지는 모두 7687장으로 코스별로 소개강좌 2431장, 경흉추 패키지 886장, 요추추 패키지 1732장, 상지 패키지 966장, 하지 패키지 660장, 고급과정 1012장이었다(Table 1).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코스별 주강사 강의평가 설문지로서 평가항목은 주평가항목과 강의내용의 이해정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평가항목에는 교수법, 강의시간, 강의수준, 강의교재, 시청각 자료, 실습교육법, 실습시간, 실습도구, 질문과 답변, 임상도움의 10개의 항목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또한 강의 이해정도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0~100%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만족도의 총점은 주평가항

목과 강의이해정도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였다.

**Table 1.** Number of questionnaires of each course for three years

	2013 year	2014 year	2015 year	Sum
Intro	695(28.6) <sup>a</sup>	802(33.0)	934(38.4)	2431(100.0)
C-T	332(37.5)	273(30.8)	281(31.7)	886(100.0)
L-S	964(55.7)	523(30.2)	245(14.1)	1732(100.0)
UE	362(37.5)	372(38.5)	232(24.0)	966(100.0)
LE	278(42.1)	229(34.7)	153(23.2)	660(100.0)
AD	350(34.6)	320(31.6)	342(33.8)	1012(100.0)

Intro: introduction course  
 C-T: cervico-thoracic course  
 L-S: lumbo-sacral course  
 UE: upper extremity course  
 LE: lower extremity course  
 AD: advance course  
<sup>a</sup>Number(%)

### 3. 조사방법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각 지부에서 한 강좌가 끝나는 대로 지부 담당자는 수강자에게 강의록 뒷장에 인쇄되어 있는 설문지에 기재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설문지는 모아서 본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4. 분석방법

강좌는 소개강좌, 경흉추, 요천추, 상지, 하지,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단, 2013년도에 시행된 요추 패키지과 골반 패키지가 2014년도부터는 합산되어 요천추 코스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의 요추 패키지와 골반패키지는 합산하여 요천추 코스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강좌는 2013, 2014, 2015년 3개년간의 강의만족도를 분산분석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 III.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3년 모두 남자보다 여자(2013년 51.5%, 2014년 56.1%, 2015년 54.3%)가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26~30세(2013년 44.0%, 2014년 46.0%, 2015년 43.4%)가 가장 많았고, 근무처는 병원(2013년 48.3%, 2014년 50.5%, 2015년 54.5%)이 가장 많았으며 임상경력 3년 이하(2013년 74.2%, 2014년 75.7%, 2015년 76.9%)가 대부분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013 year	2014 year	2015 year
Sex			
Male	1473(48.5) <sup>a</sup>	998(43.9)	1004(45.7)
Female	1564(51.5)	1276(56.1)	1195(54.3)
Age			
≤25 yrs	1079(36.5)	851(38.9)	898(42.2)
26~30 yrs	1301(44.0)	1008(46.0)	923(43.4)
31~35 yrs	349(11.8)	203(9.3)	189(8.9)
36 yrs≤	225(7.6)	128(5.8)	118(5.5)
Employment			
Clinic	785(26.5)	627(28.2)	573(26.8)
Hospital	1433(48.3)	1123(50.5)	1164(54.5)
General hospital	461(15.6)	300(13.5)	261(12.2)
Welfare center	11(4)	17(8)	9(4)
Etc	274(9.2)	158(7.1)	130(6.1)
Experience			
≤3 yrs	2109(74.2)	1612(75.7)	1595(76.9)
4~5 yrs	324(11.4)	290(13.6)	267(12.9)
6~7 yrs	121(4.3)	95(4.5)	65(3.1)
8 yrs≤	288(10.1)	133(6.2)	145(7.0)
Sum	3037(100.0)	2274(100.0)	2199(100.0)

<sup>a</sup>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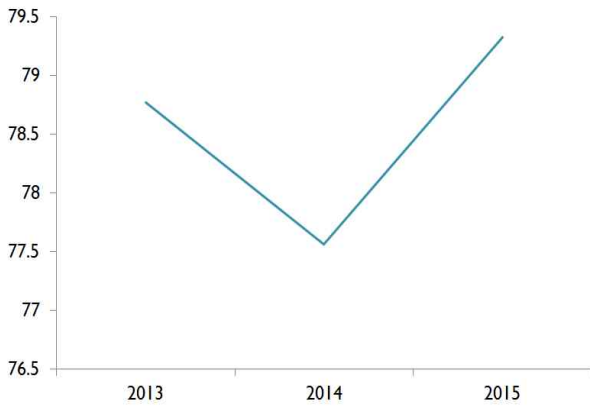
### 2. 소개강좌의 강의만족도 비교

소개강좌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 2014년도(77.56±12.60)에 비해서 2013년도(78.77±13.73)와 2015년도(79.33±13.59)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Fig 1).

**Table 3.** Comparisons of satisfaction of introduction course from 2013 to 2015

Year	Satisfaction	F	p	Scheffe
2013	78.77±13.73 <sup>a</sup>			
2014	77.56±12.60	3.887	.021	b<a, c
2015	79.33±13.59			

<sup>a</sup>Mean(score)±SD, a: 2013 year, b: 2014 year, c: 2015 year



**Fig 1.** Satisfaction change of introduction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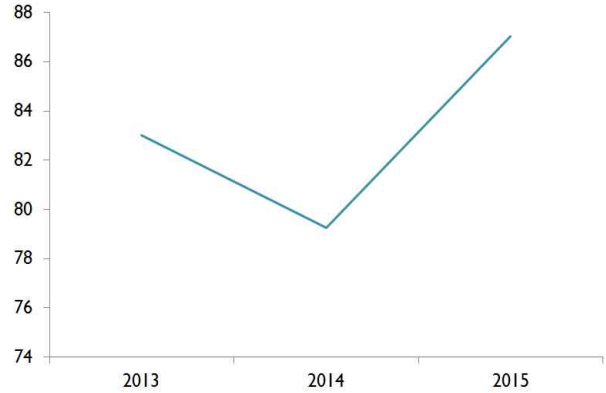
**3. 경흉추 코스의 강의만족도 비교**

경흉추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2015년도(87.02±12.53)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13년도(83.01±14.30)였으며, 2014년도(79.26±14.0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Fig 2).

**Table 4.** Comparisons of satisfaction of cervico-thoracic course from 2013 to 2015

Year	Satisfaction	F	p	Scheffe
2013	83.01±14.30 <sup>a</sup>			
2014	79.26±14.03	22.335	.000	b<a<c
2015	87.02±12.53			

<sup>a</sup>Mean(score)±SD, a: 2013 year, b: 2014 year, c: 2015 year



**Fig 2.** Satisfaction change of cervico-thoracic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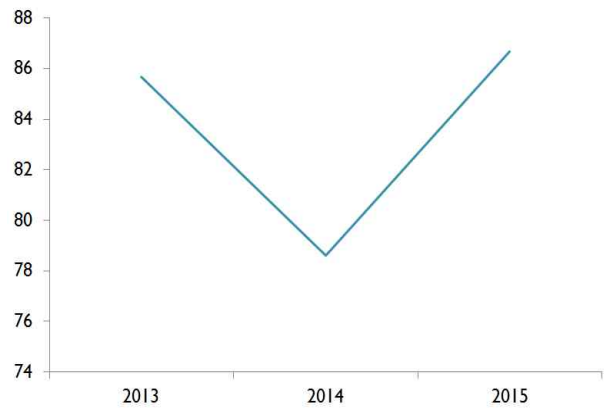
**4. 요천추 코스의 강의만족도 비교**

요천추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2014년도(78.62±14.41)에 비해서 2013년도(85.68±12.14)와 2015년도(86.67±12.35)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Fig 3).

**Table 5.** Comparisons of satisfaction of lumbo-sacral course from 2013 to 2015

Year	Satisfaction	F	p	Scheffe
2013	85.68±12.14 <sup>a</sup>			
2014	78.62±14.41	58.076	.000	b<a, c
2015	86.67±12.35			

<sup>a</sup>Mean(score)±SD, a: 2013 year, b: 2014 year, c: 2015 year



**Fig 3.** Satisfaction change of lumbo-sacral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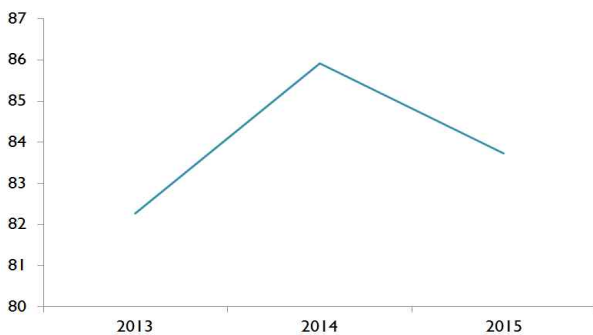
**5. 상지 코스의 강의만족도 비교**

상지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2014년도(85.92±12.06)에 비하여 2013년도(82.27±12.29)와 2015년도(83.73±13.57)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Fig 4).

**Table 6.** Comparisons of satisfaction of upper extremity course from 2013 to 2015

Year	Satisfaction	F	p	Scheffe
2013	82.27±12.29 <sup>a</sup>			
2014	85.92±12.06	7.828	.000	a, c<b
2015	83.73±13.57			

<sup>a</sup>Mean(score)±SD, a: 2013 year, b: 2014 year, c: 2015 year



**Fig 4.** Satisfaction change of upper extremity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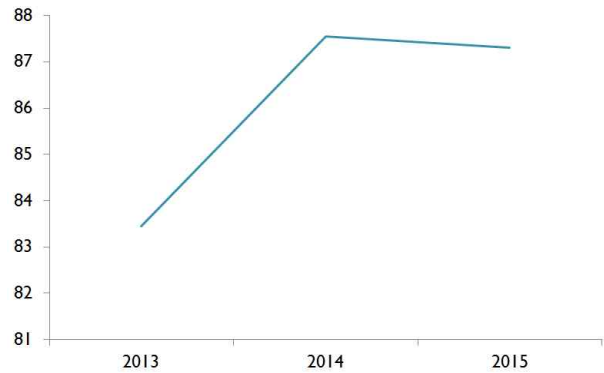
**6. 하지 코스의 강의만족도 비교**

하지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2013년도(83.45±14.02)에 비해서 2014년도(87.55±12.17)와 2015년도(87.31±11.49)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Fig 5).

**Table 7.** Comparisons of satisfaction of lower extremity course from 2013 to 2015

Year	Satisfaction	F	p	Scheffe
2013	83.45±14.02 <sup>a</sup>			
2014	87.55±12.17	7.778	.000	a<b, c
2015	87.31±11.49			

<sup>a</sup>Mean(score)±SD, a: 2013 year, b: 2014 year, c: 2015 year



**Fig 5.** Satisfaction change of lower extremity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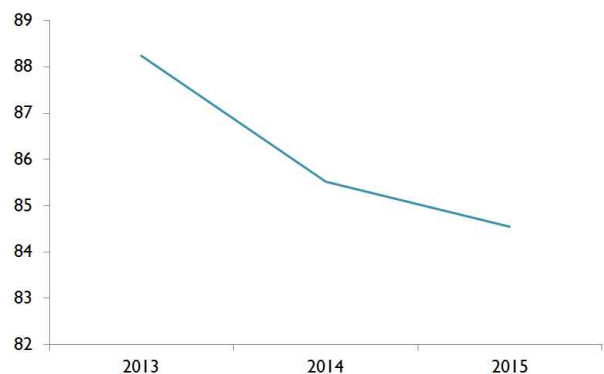
**7. 고급과정 강의만족도 비교**

고급과정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2013년도(88.24±9.81)에 비하여 2014년도(85.52±11.85)와 2015년도(84.54±12.47)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Fig 6).

**Table 8.** Comparisons of satisfaction of advance course from 2013 to 2015

Year	Satisfaction	F	p	Scheffe
2013	88.24±9.81 <sup>a</sup>			
2014	85.52±11.85	9.591	.000	b, c<a
2015	84.54±12.47			

<sup>a</sup>Mean(score)±SD, a: 2013 year, b: 2014 year, c: 2015 year



**Fig 6.** Satisfaction change of advanced course

#### IV. 고 찰

1995년도부터 시행된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연수교육강좌는 그동안 크게 두 번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개편은 2004년도에 시행된 개편으로서 그동안 기본과 심화로 운영되던 강좌시스템을 묶어서 패키지 코스로 전환하였다. 김호봉과 박지환(2004)은 한국 도수물리치료의 발전과정을 1991년부터 도입기, 준비기, 발전기, 중흥기, 도약기로 구분하고, 임상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개편하고 임상물리치료사들에게 실용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도한 2004년도부터를 도약기로 분류한 바 있다.

두 번째 개편은 2014년도에 이루어진 개편으로 패키지 코스 내에서 약간의 내용변화와 시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4년도에 이루어진 개편의 골자는 코스당 강좌 시간의 감소로 요약된다. 강좌시간을 과감히 축소하여 수강생들이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알차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한 개편이었다.

2013년도에 연수강좌를 시작한 심장호흡물리치료 연수강좌의 경우 단순히 초급 10시간, 중급 20시간, 고급과정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방상분과 김호봉, 2015). 정형도수물리치료 교육과정은 그것에 비하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과정의 역사나 사례의 다양성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개편으로 5시간의 소개강좌, 각각 30시간으로 이루어진 4개의 초중급 부위별 강좌, 그리고 20시간의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진 강의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2013년, 개편 첫해인 2014년, 그리고 둘째해인 2015년까지 3개년의 강의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강의 시스템의 개편이 수강생의 강의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소개강좌는 모든 코스의 시작으로 소개강좌의 승패가 다른 모든 강좌의 승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정형도수물리치료를 배우고 졸업하는 최근의 교육시스템에서 소개강좌의 존재는 오히려 정형도수물리치료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지루한 강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개강좌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강좌의 만족도에 비하여 낮은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소개강좌는 꼭 필요한 강좌이기 때문에 5시간으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다. 축소운영을 시작한 첫해인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2013년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

상을 나타냄으로서 시간의 축소가 강의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흉추 코스는 2013년까지 경추 패키지 30시간으로 운영하던 코스이므로 2014년도에 30시간으로 시간의 변동은 없으나 흉추가 추가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욱 함축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 강좌이다. 우려한 바와 같이 2014년도의 만족도는 2013년도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2013년도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으로서 강사들이 시간 축소에 적응함으로써 수강생들은 더욱 함축적이고 효율적인 강의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생각된다.

요천추 코스는 흉요추 패키지 40시간과 천추 패키지 30시간이 결합되는 대신 흉추 부분을 제외하고 30시간으로 만들어진 강좌이다. 두 개의 패키지가 한 개의 코스로 합해짐으로서 다른 어떤 강좌보다도 강의시간의 압박과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강좌이다. 우려한바대로 2014년도에는 2013년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도에는 2013년도의 만족도를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강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강의기간에 맞추어 적응을 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지 코스는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시간이 축소된 코스이지만 2014년도에 2013년도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임으로서 개편 첫해에 만족도가 떨어진 척추부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동안 부위별로 구분하여 4주 동안 진행되던 강좌에 비하여 3주로 축소됨으로서 부위별로 분리됨이 없이 상지부위를 통합하여 강의를 진행되는 것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다시 만족도가 낮아짐으로서 강사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하지 코스도 상지 코스와 같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축소 운영되었지만 개편에 가장 빨리 적응한 코스로 생각된다. 2013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높아진 만족도를 2015년도에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지 패키지에서 부위별로 구분하여 4주 동안 진행되어오던 강좌에 비하여 수강생들은 신체부위를 통합하여 3주 동안 빠르게 진행되는 강좌에 더 큰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급과정은 강의 시스템의 개편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3개년 간 기존의 시스템으로 진행되었으나 2013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와 2015년도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고급과정은 강좌가 많고 한 강좌가 반복되어 진행되기 보다는 매회 다른 강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특정 코스의 부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즉 2013년도에 회수된 350장의 설문지는 경추 도

수교정, 요추 도수교정, 근에너지기법, 멀리건, 신경역동학 등의 강좌에서 회수된 설문지였고, 2014년도에는 근에너지기법, 근막이완술, 도수교정, 멀리건, 두통 및 측두하악관절, 골반안정화기법, 메이틀랜드기법 강좌에서 회수된 320장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에는 근에너지기법, 근막이완술, 도수교정, 움직임을 동반한 관절가동술1(사지), 움직임을 동반한 관절가동술2(척추), 신경역동학기법, 그리고 두개천골요법 강좌에서 회수된 342장의 설문지를 분석한 것이었다. 고급과정 자체만을 보았을 때 2013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와 2015년도의 만족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의 고급과정 만족도가 같은 기간의 부위별 기본 중급 코스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것은 2013년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개최된 강좌를 보면 2013년도에 개최된 경추와 요추 척추도수교정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년도에만 개최된 코스의 영향으로 2013년도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고급과정의 특성상 강사의 능력으로 코스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얼마든지 만족도가 높은 강좌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강사들이 강사의 능력을 발휘하여 만족도 높은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서 시행된 연수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회수된 설문지 7687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개강좌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 2014년도의 만족도가 2013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2013년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 경흉추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2014년도는 2013년도보다 낮았으나, 2015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3. 요천추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는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2014년도는 2013년도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도에는 2013년도와 같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4. 상지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2014년도에 2013년도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도에 2013년도와 같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5. 하지 코스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2014년도에 2013년도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2015년도에도 2013년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6. 고급과정의 연도별 강의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2014년도에 2013년도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도에 2013년도가 같은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았을 때 2014년도에 시행한 연수강좌개편의 영향으로 2014년도에는 강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도에 이르러서 모두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강의 시스템에 적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김근조. 정형물리치료 강의평가분석.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1999;5(1):27-38.
- 김근조. O.M.P.T.강사들의 정형물리치료 교육효과에 대한 조사.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1998;4(1):22-33.
- 김호봉 박지환. 한국 정형도수치료의 발전 과정과 미래에 관한 정책연구.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4;10(1):43-55.
-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20년사. 2012;20-25.
- 방상분, 김호봉. 심장호흡물리치료의 임상연수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조사연구. 대한호흡물리치료학회지. 2015;3(1):21-28.
- 황성수 권혜정. 졸업 후 물리치료사의 교육환경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2012;18(2):57-66.